

#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 다문화 모범가정을 찾아서

<2> 다문화학교 교사 최스베틀라나씨  
(42·카자흐스탄 출신, 광주시 서구)



새날학교에서 함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 철·성찬미·최스베틀라나·왕 리·서한나 선생님(왼쪽에서부터).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 “7년 한국생활 시부모님이 든든한 힘”

고려인 3세, 2001년 남편 만나  
3년간 한국어·문화 강좌 참여  
한국 사회 적응 부담한 노력  
올해부터 새날학교서 교사 생활



최씨와 딸 세연양이 광주여성발전센터에서 마련한 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13일까지 광주에 사흘째 눈이 내렸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시집 온 최스베틀라나씨는 평평 쏟아지는 눈이 반갑다. 나고 자랐던 카자흐스탄의 고향 생각이 절로 났다. 하지만 함박눈에 대한 감정도 잠시, 눈길에 갇힌 아이들 걱정이 밀려든다. “오늘 아이들과 첫 만남인데...”

지난 12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 새날학교에서 최스베틀라나씨를 만났다. 새날학교 교사인 최씨는 카자흐스탄 출신으로 7년 전인 2002년 남편 전상중(40)씨와 결혼해 서구 유촌동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이다. 그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새날학교에서 수학과 과학, 러시아어를 가르친다.

“오늘이 방과 후 학습을 첫 시작하는 날인데, 눈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오질 못했어요. 아쉬워요. 교단에 서 있는 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최씨는 카자흐스탄에서 나고 자란 고려인 3세대. 일제의 폭압을 피해 할아버지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했고, 1938년 최씨의 부모는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옮겨갔다. 교사와 엔지니어였던 부모님 덕분에 그는 카자흐스탄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뒤 모스크바에서 유학했다. 모스크바대학교 토목과 4학년 재학 중 가정 사정으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카자흐스탄대학교 토목과를 졸업했다. 이른 스페틀라나는 ‘햇빛처럼 빨갛다’는 뜻으로 ‘명석·빛남’을 의미한다.

최씨가 남편 전씨를 처음 만난 건 2001년. 카자흐스탄에 비즈니스차 온 남편을 회사 동료 소개해 만났다. 그 인연으로 그는 2002년 5월 제주도를 방문하게 됐다. 말로만 들던 ‘할아버지의 나라’를 처음 밟은 것이다.

그리고 그해 10월 결혼했고 11월 광주로 건너와 정착하게 됐다.

대졸 학력에 고려인 3세로 같은 한민족이지만 생활 환경이 다른 지난 7년간의 한국 생활은 무척 힘들었다고 한다.

“연애 시절엔 남편과 언어소통이 안될 땐 그림까지 그려가며 즐겁게 대화를 나눴는데, 막상 결혼 후 한국 생활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다 문화·음식 차이도 심해 처음엔 남편과 많이 싸웠죠. 그때마다 남편이 다독이고 감싸줬어요. 이젠 카자흐스탄보다 여기가 더 익숙하고 편해요.”

그는 남편 외에 또 다른 든든한 ‘백이’ 있다고 자랑했다. 다른 아닌 시부모님이다. 시어머니는 그를 ‘아가’라고 부른다. 시집 와서 7년이 지난 지금껏 ‘아가’란다. 최씨는 “저도 시어머니를 얼마처럼 의지하고 모시고 살아요”라며 딸 세연(5)이와 함께 시택에 자주 찾아가 수도도 땀고 논다고 행복해 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 전남대 어학교육원에서 한국어강좌를 들었고, 광주여성발전센터와 이주가족복지회에서 3년 동안 한국어, 한국문화, 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했다. 그 덕분에 지난해 한국어능력시험 3급을 통과했다. 올해부터는 몽골 친구의 소개로 새날학교에서 수학과 과학, 러시아어를 가르치게 됐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 정체성 혼란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죠. 반면 일반 가정 아이들은 다문화 자녀에게 문화적 편견을 가지고 있고,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시집 온 고려인이예요. 고려인이면서 이주여성인 거죠. 앞으로 새날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그동안 한국 생활의 경험을 살려 다문화 교육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어요.”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다문화 가정 자녀 대안학교 ‘새날학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새날학교’가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글로벌 교육기관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지난 2007년 1월 문을 연 새날학교는 광주·전남 지역 기업인과 의료인, 대학교수, 교직원교회 등 각계각층의 도움으로 설립됐다. 개교 당시 5명이던 학생 수도 2년만에 34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이주여성 자녀 26명과 중국·베트남·방글라데시·몽골·우즈베키스탄·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 자녀 8명 등 11개국 출신 이주여성·노동자 자녀들로 전국 각지에서 유학을 왔다. 이들을 연령·학력 수준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7개반으로 나눠 28명의 교직원들이 가르치고 있다. 올해는 초등학교 60명, 중학교 30명, 고등학교 30명 등 모두 120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2007년 각계 도움으로 문 열어  
학생수 34명 전국 각지서 유학  
베트남·中 등 10개국어 수업도

새날학교는 이들이 모국어를 잊지 않도록 모국어 수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천영 교장(현 전남여성 교사·사진)은 “수업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자신들 스스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베트남어·중국어·러시아어 등 10개국의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모국어 수업도 병행한다”고 말했다.

새날학교는 그동안 평동공단 내 평동초등학교와 평동중학교에서 더부살이를 하다 최근 광주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로 폐교된 삼도남초등학교에 새 보금자리를 틀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지만 재정난 등으로 아직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 새날학교를 찾은 12일에 눈발이 흠날리는 곳은 날씨에도 교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교정 수리와 보수공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 교장은 “새날학교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이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고 싶다”며 “하지만 학교 이전 등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주변의 관심과 후원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새날학교는 충북 청주·경기 부천·인천 시화·여수·목포 등 전국 10개 지역에 설립된 분교에 학교 운영과 교수법 등을 전수해 주고 있다. 문의 062-943-8935.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매일밤 8시부터 화려한 성인 쇼쇼쇼!!

국민가수 인순이

1월 14일(수) 오늘출연

부킹/서비스 만족도 1위 상무나이트